

OECD-FAO 농업전망 2009-2018(1)*

반 현 정

2009년 OECD-FAO 농업 전망 보고서 작성은 예상치 못한 세계경기 침체로 쉽지 않았다. 이번 농업 전망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고려하였지만 주요 기관에서 전망 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GDP가 감소한다는 것과 OECD 국가들이 2010년에 경제 성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경제가 회복된다면 전망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2008년, 세계적 식품 가격 급등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위기는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앞으로 수 년 동안 식품 시장과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 급등이라는 충격은 국제 시장의 미래 신뢰도 즉, 미래에 적절한 가격으로 식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식품 가격이 그 후로 상당히 하락하였으나 그 여파는 200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의 침체와 뒤이어 일어난 경제 위기는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앞으로 수 년 동안 식품 시장과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높은 가격의 즉각적인 여파로 세계 농업이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가격의 상승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농산물 생산

* 본 내용은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2018, Highlight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현정 연구원이 발췌 번역한 것이다.(ban0530@krei.re.kr, 02-3299-4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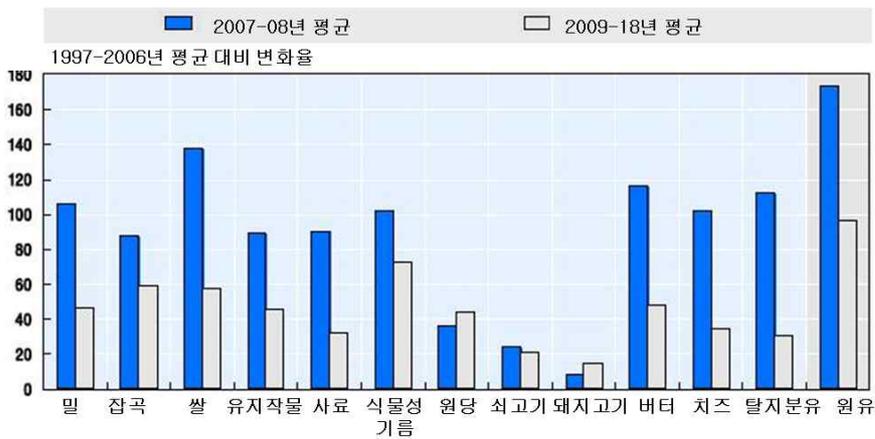
을 늘리라는 신호를 주어 그 결과 곡물 부문의 세계 산출량이 7% 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높은 국제 가격이 모든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듯이 모든 농부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산출량 확대는 13%를 상회하지만 개도국은 2%에 미칠 뿐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생산의 증가가 없었다는 것은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 정책 개혁과 생산적인 농업에 대한 추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저개발국에서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나라들은 기본적인 식품의 순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계속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국내 생산 증가율이 수요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더 낮은 경제 전망과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경우 최고를 기록한 2007-08년보다는 낮겠지만 1997-2006년 평균보다는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실질 가격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축산물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실질 가격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과 그림 2 참고)

지난 해 높은 가격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지만 개도국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림 1 주요 식품의 명목 가격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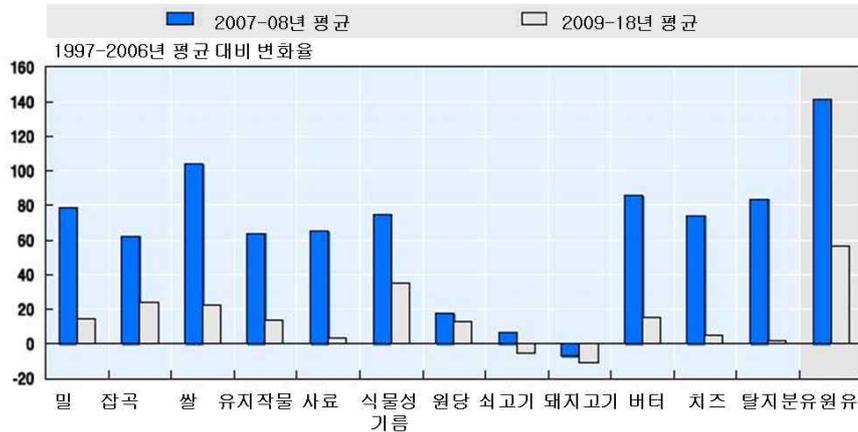
치즈, 탈지분유, 버터, 쌀, 밀의 생산자들은 2007-08년과 비교하여 평균 가격의 상당한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명목 가격은 1997-2006년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식물성 기름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명목 가격은 1997-2006년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20% 또는 그 이상 상승할 것이다. 최근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명목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원유도 이와 비슷한

쇠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제품의 실질 가격은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997-2006년과 비교하면 평균 가격이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곡물 가격을 추가적으로 20~30% 정도 올릴 것으로 보이고 10% 이하의 축산물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실질 가격의 평균은 최고점을 기록한 2007-08년 수준보다 많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큰 하락을 겪을 것으로 기대되는 곡물은 쌀, 밀, 버터, 치즈와 탈지분유이다. 그러나 전망 기간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한 제품의 실질 가격은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원유의 평균 실질 가격은 2007-08년의 최고점보다는 상당히 아래이지만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는 60%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주요 식품의 실질 가격 변화율



중기적으로 이번 전망에 포함된 모든 제품의 공급은 세계적으로 10% 또는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소비 증가는 인구가 더 많고 소득이 증가하여 개발되는 지역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08년 기간 동안 대부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 것과 기후변화가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미래 식품 유용성(availability)에 대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이번 전망에서 포함된 모든 제품의 공급은 세계적으로 10% 또는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축산물과 식물성 기름의 세계 생산은 2006-08년 평균보다 40% 이상 증가하고 유지작물, 가금류, 버터와 전지분유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밀과 잡곡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이 선진국에서 개도국, 특히 신흥국과 중간 소득 나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육류와 유제품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농산물 소비 증가는 인구가 더 많고 소득이 증가하여 개발되는 지역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6-08년 기간 동안의 평균 소비와 비교하면 개

발도상국의 사료 사용은 2018년에 거의 60% 증가하는 반면 버터와 가금류 소비는 50%, 식물성 기름의 소비는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곡물 생산과 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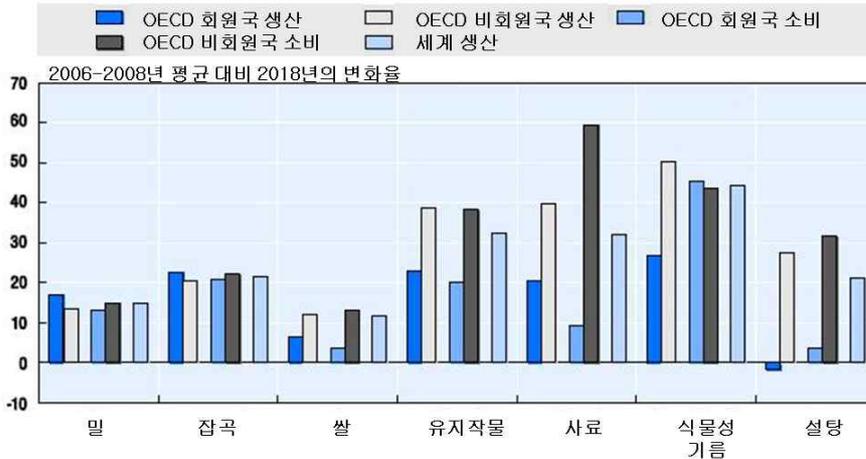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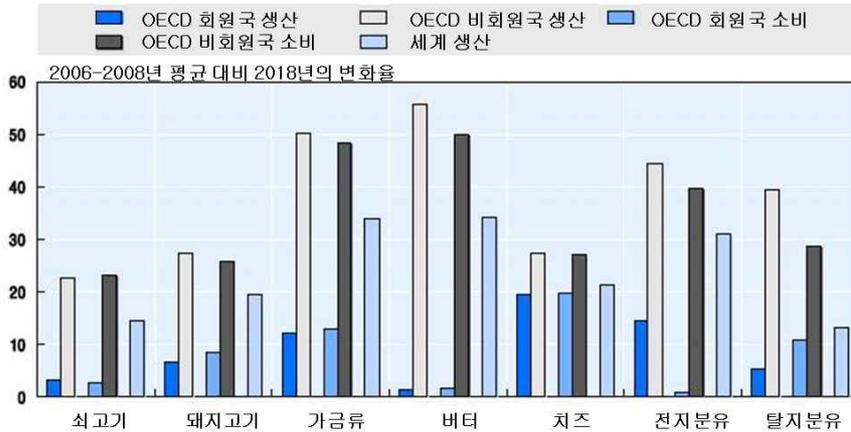


그림 4 축산물 생산과 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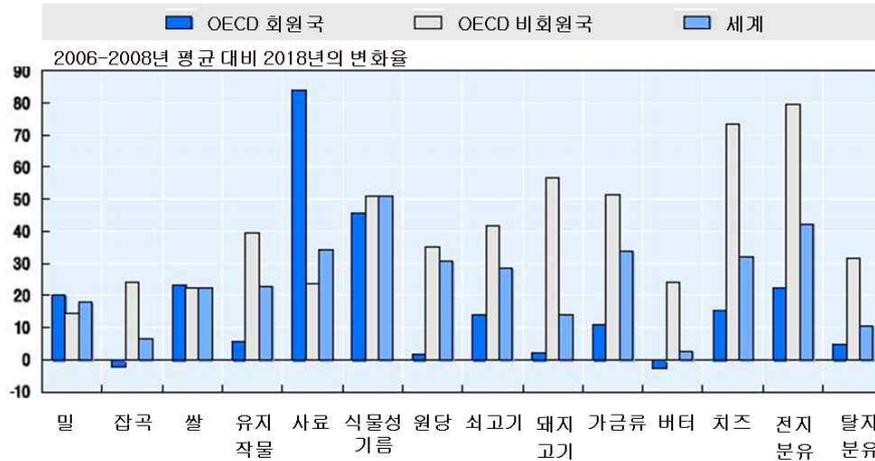


세계 생산과 소비 전망을 고려해보면 세계 농산물 시장은 상대적 이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출국의 등장이 새로운 특징이 될 것이다. 그림 5는 2006-08년의 평균 수출에 대한 2018년 수출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수출 확대에 따라 준비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위주로 상품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2006-08년 평균과 비교하면 OECD 국가들로부터 수출되는 버터와 잡곡은 2018년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밀, 쌀, 특히 사료 수출의 상당 부분은 OECD 국가가 담당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OECD 비회원국

앞으로 10년 동안 OECD 비회원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와 같은 식품과 가치 부가형 농산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가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와 같은 식품과 가치 부가형 농산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림 5 수출 증가율



2. 상품 시장의 주요 동향

균형을 회복한 곡물 시장

2008년의 생산량 및 재고 증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세계 곡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곡물의 생산량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높은 산지 가격과 유리한 재배 조건으로 2008년에 전세계 농민들은 밀과 잡곡에서 최고의 생산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시장이 안정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곡물 재고를 높여주었다. 이와 같이 높은 재고량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09년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곡물 시장이 보다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전망기간동안의 곡물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단수를 높이는 투입재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또는 필요한 경작지를 새롭게 확보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제적 유인을 주지 못한다. 대신 상대가격의 변화는 기존의 토지와 자원이 곡물 및 유지작물 중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로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곡물의 생산량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수 증가율도 지난해에 필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수요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것은 밀과 쌀 시장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다. 식품으로써 소비하기 위한 곡물 수요는 가구의 소득 감소에 탄력

적이지만 이와 달리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옥수수과 밀의 수요, 가축 사료용 곡물 수요 등은 정부정책이나 거시경제적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미국의 옥수수 수요와 유럽의 밀 수요는 석유 제품과의 경쟁보다는 의무사용량, 세금 면제, 다른 형태의 정부 보조 등의 지지를 받았다.

밀과 잡곡

국제 곡물 교역이 성장하리라는 전망은 확고하지만 경기침체와 유동성 제약으로 몇 년 뒤의 성과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가올 10년의 초기에 시장이 조속히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세계 밀 교역은 10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2%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현재 미국, EU, 호주가 세계 밀의 주요 공급국이지만 이 전망의 말미에는 CIS 국가들이 밀의 주요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과 동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은 국제 밀 수요 증대에 계속해서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액의 생산 보조금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책의 변화를 볼 때 주요 수입국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요와 수입(import)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득의 전반적인 증가로 일어나고 있는 식품 시장의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밀의 1인당 소비 증가는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등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에서도 자주 나타나던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식품에 선호를 두기 때문이다.

잡곡은 지난 10년의 기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교역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잡곡의 국제 수요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축산업 사료 수요 증가에 크게 기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수입이 9,700만 톤까지 성장하여 선진국들의 감소 추세를 상쇄하며 전세계 수입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2008년도의 높은 쌀 가격은 쌀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6-08년 동안 국제 시세가 두 배가 되는 데에는 수요 공급의 구조보다 무역 규제, 정부 개입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만들어진 부조화된 정책의 개입은 국제 쌀 가격과 변동성을 높이는 데만 기여했다.

정부의 지지 강화는 2007, 2008년 쌀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쌀 경작이 확대되었다. 쌀 재배 증대 경향은 앞

쌀 재배 확대 경향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망 말미에는 각국의 조정으로 현재의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이 조속히 회복된다면 그 이후에 세계 밀 교역은 매년 거의 2%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잡곡은 지난 10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교역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으로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망의 말미에는 각국의 조정으로 현재의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생산자 대부분은 생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업적 쌀 경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쌀 경작에 적합하며 사용 가능한 땅을 많이 보유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경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은 쌀 경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산 감소는 부분적인 조정으로 지난 10년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곡물들과 마찬가지로 쌀도 생산성 향상이 예견되는데 이로 인해 2018년까지 쌀 생산이 9% 늘어나는 등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쌀은 여전히 주요 식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전 세계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아시아에서 주요 작물인 쌀은 소득 증가와 식생활 다양화로 전망 기간 동안 1인당 소비가 2kg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에서의 쌀 수요 증대는 교역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책 개혁으로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한 EU를 비롯한 OECD 국가의 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수출국들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몇몇 최저개발국들이 세계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규제하려는 정부 개입은 쌀의 국제 무역과 가격 형성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높은 가격은 세계 쌀 재고가 전망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할 것이지만 재고가 1990년대 후반처럼 아주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한다.

유지작물 및 식물성 기름

모든 작물 중에 유지작물 시장이 가장 많이 확대되어 전망 말미에는 세계 생산이 지난 20년 동안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기름의 증가추세는 유지작물 생산 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작가능한 모든 작물 중 유지작물 시장이 가장 많이 확장되어 전망 말미에는 세계 생산이 지난 20년 동안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작지 재분배, 방목지 다각화, 새로운 경작지 사용 등에 힘입어 브라질, EU, 아르헨티나에서 집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아메리카의 불리한 기후 상태, 농장의 유동성 문제 등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유지작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 지역들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브라질의 세계 수출 비중은 2009~2018년 기간 동안 30~39%에 이르러 현재 선두인 미국을 추월하여 유지작물 수출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성 기름의 증가추세는 유지작물 생산 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유지작물 가루는 식물성 기름의 수요를 계속 따라갈 것이다. 지속적인 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유지작물과 야자나무로 만들어진) 식물성 기름은 이번 전망에서 소비가 가장 빨리 확대되는 상품으로 남을 것이다. 예상되는 수요증가의 대부분은

세계 수요 증가의 2/3를 차지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서 기인했으나 바이오 연료의 의무 사용량 증가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원료로써 식물성 기름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화석 연료 가격에 대한 바이오디젤의 수익성과 정부의 바이오연료 지지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 분야 발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바이오 연료 정책에 있어서 의무 사용량을 없애거나 낮추도록 할 수 있다. 이번 전망의 말미에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식물성 기름의 파생 수요가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소비의 2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지난해 설탕 가격은 다른 품목과 달리 높은 가격이 아닌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원유나 다른 상품의 전망 등 설탕과 관련 없어 보이는 많은 요소들과 설탕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화물 운임률 상승, 설탕 선물 시장의 실적은 설탕 가격과 변동성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설탕 시장은 전통적인 시장 구조에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추가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북아메리카, EU와 같은 주요 생산 및 교역 지역에서 설탕 부문의 정책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전망은 다소 정확하지 못할 수 있다.

고수익이 예상되는 다른 작물들의 경작면적이 기준연도에 비해 축소된 이후 사탕수수 경작지가 확장되고 결합 산출물이 증가(2018년까지 2%)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인 설탕 생산에 경작지가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세계 설탕 생산 및 수출을 선도하는 브라질이 에탄올 생산에 사탕수수를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EU는 정책 개혁으로 경작지가 급격히 축소되어 사탕무 생산이 많이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량된 설탕 품종의 채택으로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느리지만 이번 전망 기간 동안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은 다른 작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가격에 의해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고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9년의 유례없는 세계 금융 위기와 경기 하락은 1인당 소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 설탕을 사용하는 간편한 식료품의 증가와 인구 증가로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ECD 국가는 인구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비만 및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화되어 설탕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어 설탕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망에서 실질적으로 세계 설탕 생산과 소비 증가의 모든 부분은 OECD 비회원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전체 시장의 생산과 수출에서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에는 약 80%까지 증

지난해 설탕 시장은 전통적인 시장 구조에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추가시키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번 전망에서 실질적으로 세계 설탕 생산과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OECD 비회원국에서 일어난다.

대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구조적 개혁으로 사탕무와 설탕 생산이 매우 많이 축소되어 세계 설탕 수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EU의 설탕 수입은 주로 경제적 협력 협정을 맺은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국가들과 Everything-But-Arms Initiative¹⁾를 적용하는 최빈국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수출 능력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의 감미료 시장은 NAFTA에 의해 2008년에 멕시코로 완전히 통합되었고 미국은 새로운 다년간의 농장법(FCE act)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것은 NAFTA 회원국인 멕시코로부터의 설탕 수입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시장의 가격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이 설탕의 주요 순수입국으로서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비용이 낮고 추가적인 땅을 생산에 사용할 잠재능력이 있는 브라질은 전망 기간 동안 설탕 생산이 3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생산은 에탄올과 설탕의 상대적인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까지 사탕수수의 60%가 에탄올로 전환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

지난해 육류 가격도 예외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사료 비용의 상승으로 한계 이윤이 하락하여 빚을 빨리 청산하기 위해 축산업자들이 육류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류 가격이 오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전 세계 구매력이 감소하여 수요가 위축된 것 때문이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라고 볼 수 있다. 예산 감소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은 고기를 덜 비싼 육류제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가 반등된 이후 육류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생산과 소비 증가, 시장이 성숙한 OECD 국가의 더욱 안정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보다는 느리지만 세계 전반적으로 매년 2% 이상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OECD 비회원국들의 육류 생산 증대는 OECD 국가의 2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생산 증가의 87%는 OECD 비회원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증대, 인프라 개선, 현대화 도입, 생산 기술의 집중화 및 통합화는 OECD 비회원국의 높은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경제의 가급류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육류의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CIS 국가들도 이에 해당된다. 그 결과, 브라질 같은 몇몇 신흥국들은 국제 육류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경기 침체가 반등된 이후 육류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생산과 소비 증가, OECD 국가의 더욱 안정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회원국들의 육류 생산 증대는 OECD 국가의 2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최빈국과 개도국에게 각종 경제개발사업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존재가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질병 통제, 정책 개혁, 풍부한 토지 자원, 자본, 기술이 결합되어 전망의 말미에는 전 세계 육류 수출의 1/3을 브라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함께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를 포함한 소수의 주요 수출국들은 세계시장의 주요 교역국으로 남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U는 정책 개혁과 국내 소비 증가로 수출 점유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은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기존의 야채 위주 식단에서 육류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육류 소비는 세계 성장 전망치의 약82%를 차지하며 성장의 대부분은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은 가금류와 돼지고기 등 저렴한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 증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신용 위기로 인해 특정 지역의 육류 교역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육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수요가 국내 생산 능력을 초과하여 육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망에서 육류 수요에 대한 또 다른 발견으로는 소비자 선호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등 돼지고기 소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다른 육류보다도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쇠고기의 중요성이 높고 국제 시세가 자국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쇠고기가 계속하여 선호되는 품목으로 남을 것이다.

낙농제품

2007년에 높은 수준이던 낙농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시장 가격 신호에 대한 OECD 국가의 반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농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식품 제조업자들이 저렴한 낙농 원료를 사용하여 수요가 빠르게 재조정되었다. 또한 높은 낙농제품 가격은 즉각적인 공급 증대를 가져와 가격은 떨어지고 식품 제조과정에서 낙농제품 조달 신뢰는 회복되었다.

경기 침체는 낙농제품 가격이 더 떨어지게 하는 압력이 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와 가격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낙농제품 수요 증가는 소득과 인구 증가율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다른 요소들 즉, 경제 성장에 의해 진행된 도시화로 발생하는 선호의 변화, 식습관의 변화, 식생활의 다양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품의 유용성과 소매 판로를 확장시키며 낙농 시장이 더욱 성장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낙농제품은 이번 전망 기간 동안 소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농산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기간 동안 증가하는 우유 생산 부문에서 OECD 비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환경과 수자원 제약으로 젖소 재고가 확대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고 우유는 단수 개선으로 성장할 것으로

낙농제품은 이번 전망 기간 동안 소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농산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된다. 우유 생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덕분으로 이는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남아시아의 버터 생산 확대와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전지분유 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브라질도 전지분유를 많이 생산하여 세계 낙농제품 생산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터와 전지분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세계 낙농제품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정책의 개입이 생산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EU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유 생산 쿼터 시스템(효율적인 우유 생산자 확대에 기여)을 2015년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2008년 US farm Act 조항에 따라 우유 생산자들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그 결과 OECD 국가의 추가적인 우유 생산 중 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호주의 젖소 재고는 정상적인 계절 조건 회복과 호주 낙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7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은 미래 수자원의 유용성에 달려있다.

세계 낙농 시장은 교역의 확대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황을 겪는 시장으로 분류될 것이고 주요 생산국의 공급 조정에 의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낙농 제품의 수출은 뉴질랜드, 호주, EU, 미국 등 전통적인 OECD 수출국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는 몇몇 개발도상국에 의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낙농제품 교역은 전지분유와 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수출 강국에 도전할 기회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Mercosour(남미공동시장)에게도 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그 비용은 그 외의 OECD 주요 3대 수출국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낙농제품 6대 수출국은 세계 시장의 절반 이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이 세계 전지분유 교역의 96%, 버터 교역량의 57%, 치즈 수출의 44%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OECD 국가들의 낙농제품 무역적자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수년 내에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으로 보인다.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생산은 국가 운송부문에 바이오 연료의 최소 사용량을 설정하거나 혼합 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정량적인 의무사용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원료 가격, 원유 가격, 의무사용량을 제외한 정책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첫째는 2세대 바이오 연료의 상업화 추진이고 둘째는 식품 안전성, 바이오 연료의 경제성, 환경 문제와 관련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바이오 연료의 의무사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예외로 하고 바이오 연료 공급의 상업적 실행가능성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비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료 가

바이오 연료는 국가 운송부문에 바이오 연료의 최소 사용량을 설정하거나 혼합 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정량적인 의무사용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격 약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원유 가격이 더 하락하여 바이오 연료가 화석 연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망 기간 동안 공공 부문의 지원정책이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은 명백하다.

바이오 연료의 수송용 연료 혼합과 같은 의무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세계 바이오 연료 생산은 기준년도의 2배를 초과하여 2018년까지 1,920억 달러(에탄올 1,480억 달러, 바이오디젤 44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과 미래에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 안보를 위한 법률과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의 통과 및 정책 집행으로 2018년까지 국내 에탄올 증류소에서 2008년보다 83% 상승한 630억 리터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전체 바이오 연료 사용량은 지난해의 의무사용량 이하인 240억 리터에 머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셀룰로오스 화합물 에탄올도 54억 리터만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까지 265억 리터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20년까지 수송 연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EU에서는 전망 기간 동안 에탄올 생산량이 가솔린 연료 사용량의 평균 6.6%에 이를 정도로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수입된 에탄올은 의무사용량을 충족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전망 기간 말미에는 수입량이 30억 리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에탄올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주도형 분야로 다음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9%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이다. 사탕수수즙은 에탄올의 가장 저렴한 주요 원료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고 2018년에는 브라질의 교역량이 130억 리터에 달하여 국제 시장의 경쟁력있는 공급 원으로써 남게 될 것이다.

EU가 특별히 주력해오던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은 에탄올에 대한 선호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디젤은 2018년까지 화석 디젤 사용의 7.4%의 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EU는 전망 기간 동안 세계 바이오디젤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단연 가장 큰 바이오디젤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 증가와 수입 증가로 전망기간 말미에는 바이오디젤의 수요가 충족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사용 증가는 2012년까지 38억 리터가 사용되어야 하는 의무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한편 브라질은 빠르게 성장하여 2006-08년에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연료 사용량의 2% 이하였으나 2018년에는 4%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작년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많은 개발도상국은 높은 원유 가격의 영향으로 무수한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원유 가격 하락과 경제 위기로 대부분이 일단 중단된 상태이고 미래 시장 전망

EU가 특별히 주력해오던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은 에탄올에 대한 선호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디젤은 2018년까지 화석 디젤 사용의 7.4%의 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은, 특히 장기간의 식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불확실하다. 이와 같은 최근의 정세를 반영하여 많은 개도국의 바이오연료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미래의 곡물 가격, 축산물 가격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식품 부문의 중요성 및 최근 식품 가격의 상승 속도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2018, Highlight.